

##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재혼모를 대상으로\*

김 연 옥

(서울시립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재혼이 초혼보다 취약하며 재혼이혼율이 초혼이혼율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해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현실에 착안하여, 재혼이 어떻게, 왜 해체에 이르게 되는가를 이해하고자 재혼 후 이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총 7명을 심층 면담한 녹취록을 질적자료 분석프로그램인 Nvivo2로 분석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애착이 결여된 재혼동기, 취약한 부부유대, 계자녀와의 갈등, 시집의 소외 등이 해체된 재혼생활의 특성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재혼생활의 특성들이 재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직, 간접으로 재혼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혼과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주제어: 재혼, 재혼가족, 재혼해체, 질적사례연구

### 1. 들어가는 글

후기 산업화사회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은 개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근대적 가족모델이라고 하는 초혼핵가족은 더 이상 보편적 가족유형이 아니며, 한부모가족, 자발적무자녀가족, 노인가족, 독신가족 등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혼가족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혼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이는 현상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재혼의 숫적

\* 본 연구는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에 13.4%이던 재혼율이 2003년에는 22.3%, 2004년에는 24.3%, 2005년에는 26.1%로 증가하여(통계청, 2006),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두 배 가까이 재혼이 늘어났다. 또 다른 현상은 재혼유형의 변화이다. 1995년을 기점으로 재혼여와 초혼남의 혼인이 재혼남과 재혼여의 혼인건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그 비율의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5년에 재혼남+초혼여, 초혼남+재혼여 비율이 동일하게 각각 3.5%이던 것이 2005년에는 각기 4.1%, 6.4%로 초혼남과 결혼하는 재혼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재혼유형의 변화는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의 재혼율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5년 여성재혼율은 20.4%, 남성재혼율은 18.2%로 집계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이러한 전체적인 재혼율의 상승, 남성보다 앞서서 여성의 재혼율 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재혼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이혼율의 상승이다. 2004년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이 47.4%로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였다. 2002년의 순위가 OECD국가 중 4위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혼율의 상승은 재혼가족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실에서는 이처럼 재혼이 급증하고 가족유형의 변화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빠른 속도로 퇴화하고, 그와 더불어 가족생활과 혼인유형에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초혼핵가족에 대한 이상화와,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고 더 나아가 죄악시까지 하였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잔존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상과 실제 현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무관심을 낳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혼가족의 증가와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은 재혼가족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학문적, 실천적 관심은 더욱더 요구되는데, 그것은 재혼가족이 본질적으로 초혼가족에 비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계가 불분명한 가족관계, 부부관계보다 먼저 형성된 부모자녀관계,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생활주기의 불일치, 두 부모의 존재, 복잡한 친족관계 등 다양한 재혼 가족의 특성이 재혼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재혼의 취약성은 전체 결혼 중 60% 이상이 한쪽이나 양쪽 배우자의 재혼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통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초혼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의 이혼율은 70%에 이르고, 세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는 90%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재혼 실패율을 대략 60%정도로 추정하여 초혼보다는 재혼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손원제, 2002).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재혼율의 상승이 바로 가족해체율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처럼 재혼가족의 급증과 그 본질적 취약성은 우리 사회가 재혼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저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여 아직 소수에 불과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재혼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재혼모의 역할수행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 규명(김연옥, 2002, 1999; 임춘희·정옥분, 1997), 재혼가족관계나 가족적응 연구(김효순, 2006; 장혜경·민가영, 2002;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 2000) 등이 수행되었고, 최근에 와서 재혼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김연옥, 2004; 현은민, 2002)가 발표되었을 뿐, 재혼가족 해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재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미국에서도 재혼해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재혼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계자녀관계, 계부모역할, 가족통합 등의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특히 재혼 해체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이혼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과 경험적 연구들은 재혼 해체를 별도로 연구하기 보다는 초혼, 재혼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인구집단으로 연구하는 경향이다(Fredericson and Handlon, 1994). 그 결과 재혼의 이혼율이 왜 높은가, 왜 재혼이 해체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혼은 취약한 결혼유형이며, 매우 높은 해체율을 고려할 때 재혼 해체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가족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재혼의 시작부터 해체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여 이혼에 영향을 준 재혼 생활의 특성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혼가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고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관련문헌검토

### 1) 재혼의 특성

재혼가족은 미국에서는 이미 가장 보편적인 가족유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결혼하는 5쌍 중에서 1쌍 이상이 재혼일 정도로 재혼가족은 보편적인 가족유형이 되었다. 이러한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재혼의 취약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관심을 환기시킨다.

관련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듯이, 재혼이란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extraordinary complex category)’ 이고, 이것은 배우자의 전혼경력과 계자녀의 존재라는 재혼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White and Booth, 1985). 초혼에 비해 재혼은 로맨틱한 동기보다는 경제적 안정, 자녀양육부담의 분담, 사회

- 1) 재혼해체란 재혼가족이 부부간의 이혼, 가족원의 가출이나 유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족구조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혼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혼해체를 부부의 이혼에 의해 가족붕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재혼이혼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였다.

적 압력과 심리적 외로움으로부터의 탈피 등 좀 더 현실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nong and Coleman, 1989).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 동기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전혼의 실패를 보상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외로움이 일시에 해결 될 것이라는 등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재혼생활에서 좌절되면서 재혼의 취약성을 불러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혼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혼에 관해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이 이를 둘러싼 비현실적인 통념만이 난무하다는 점이다. 재혼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혼핵가족 복원의 신화”(myth of the re-created nuclear family)로서, 재혼을 통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잃어버린, 혹은 파괴된 초혼의 가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Jacobson, 1979).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신화로 ‘인스턴스 사랑’, 즉 계자녀에 대한 사랑이 빠른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현실속에서 재혼가족은 가족경계, 역할, 규범, 가족관계 등 여러 면에서 초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환상이 현실의 생활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초혼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한다.

## 2) 재혼 해체율

재혼가족이 어떤 가족 유형보다도 많은 미국(Felker, Fromme, Arnaut and Stoll, 2002)의 경우, 1950년대 수행된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재혼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높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미주리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된, 재혼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알려진 Monahan(1952)의 연구에서 재혼이 초혼만큼 성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Walsh, 1992)로 재확인되었다.

재혼 이혼율은 재혼유형, 결혼지속기간, 성, 전혼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onahan(1958)이 결혼유형에 따른 이혼을 연구한 결과,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양쪽 모두 초혼인 경우보다 이혼율이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이혼의 또 다른 특징은 재혼해체가 초혼해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결혼이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초혼보다 재혼이 50%정도 더 많고, 10년 이내에는 20%, 25년 이내에는 10% 정도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Furstenberg and Spanier, 1984).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이혼율은 재혼유형에 따라 서로간에 차이가 있다. 동년배집단연구<sup>2)</sup>를 통해 혼인유형을 세분화시켜 유형별 이혼율을 연구한 Clarke과 Wilson(1994)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초기에는 남녀모두 재혼인 경우가 부분재혼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초혼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낮지만, 결혼기간이 15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초혼이혼율이 부분재혼보다 아주 근소하게 낮았고, 남녀모두 재혼인 경우의 이혼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변화되었다.

2) 동년배집단연구(cohort study)란 일정한 연령범위의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같은 모집단에서 각각 다른 표본을 선정하여 관찰하는 연구유형이다.

그러나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혼의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은 재혼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초혼보다는 많기 때문에 결혼이 이혼으로 종결되기 보다는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Espenshade, 1983).

성별에 따른 재혼 이혼율에 관해서는 Acuirre와 Parr(1982)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재혼남과 결혼한 초혼녀의 이혼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자의 이혼경력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관성은 재혼녀와 결혼한 초혼남의 경우에도 동일하였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혼남의 경우, 여성 배우자 또한 재혼일 때 결혼의 안정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의 이혼율은 전혼자녀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rnstein (2000)의 연구에 의하면, 양배우자 모두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유형이 다양한 재혼유형 중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생활에 대한 계자녀들의 만족도는 친부모와 사는 아이들의 그것보다 낮았으며, 집에서 일찍 독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3) 재혼모

재혼가족 중에서 재혼모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 모는 가정의 중심적 역할로서 아동양육과 교육, 가정관리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재혼가족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모의 역할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Nielse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수준이 초혼가정의 모보다 낮으며, 계모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계부들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된 김연옥(200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6.8%가 임상적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단되는 우울수준을 보여주었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모로서의 역할이다. 재혼모가 계모 역할수행을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명들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도록 사회화된 여성들이 계모가 되어서도 가족 전체를 혼자서 떠맡으려 하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양육자와 가족수발자로서의 역할이 오직 계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Nielsen, 1999), 계모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주어진 아무런 양식이나 규범이 없기 때문에 역할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Sager, Walker, Brown, Crohn and Rodstein, 1981).

계모로서 계자녀와의 관계는 재혼모의 결혼생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Quick, McKenry and Newman, 1994). 자녀들은 흔히 부모보다는 모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내 엄마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여 헤어졌을 경우, 아이들은 친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항상 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계모와 심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재혼모의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적 요소는 부부관계이다. 남편과의 결혼에 대한 만족

정도가 재혼모의 심리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김연옥, 2002). 그런데, 재혼부부의 관계는 초혼부부에 비해 서로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감정, 미숙한 문제 해결기술, 낮은 의견일치도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춘애·유계숙·천혜정, 1998).

재혼생활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변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가정의 경제관리 방식은 재혼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shman(1983)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소득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방식보다 재혼가족의 상호 헌신과 결합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특히 서구사회와 달리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관리권이 아내에게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경제관리방식이 재혼모가 재혼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융합 정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해체된 재혼의 특성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재혼모에 한정하여,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남성과 재혼한 여성의 시각에서 재혼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해체되었는가를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방형식의 질문이 주어졌다.

- 재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 재혼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재혼생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습니까?

#### 2)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택하였으며, 연구전략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를 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재혼생활의 실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uncharted social terrain’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현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이란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이므로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혼과 같이 매우 정서적이며 민감한 연구주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조사보다는 질적 연구가 보다 유용한 방법이다(Padgett, 1998).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를 선택한 것은 본 연구가 연구자가 통제를 전혀 가하지 않은 자연스런 상태에서 재혼해체가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본 연구 주제와 같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는 연구에 적합한 것은 사례연구방법이다(Yin, 2002).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재혼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재혼한 남성은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반드시 자녀가 있으며, 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여성 또한 초혼은 아니 되 전배우자와의 자녀여부, 동거여부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연구대상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각종 가정문제상담소들에 연구취지를 밝힌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였으며,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광고를 실었고, 보형 설계사, 목욕관리사 등 여성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종사자들의 협조를 얻었다. 그 결과 2006년 5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총 7명을 심층 면접할 수 있었다.

최종 분석된 사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면접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사 례 | 나 이 | 직 업   | 학 력 | 전 혼 자 녀  |                 |                | 전혼<br>해체<br>사유 | 현재혼인<br>상태 | 재혼<br>이혼후<br>기간 |
|-----|-----|-------|-----|----------|-----------------|----------------|----------------|------------|-----------------|
|     |     |       |     | 전혼<br>자녀 | 재혼시<br>동거<br>여부 | 현재<br>동거<br>여부 |                |            |                 |
| 사례1 | 52  | 간병인   | 초등졸 | 2남       | 1남동거            | 1남동거           | 이혼             | 이혼         | 2년              |
| 사례2 | 48  | 무     | 고졸  | 1남       | 1남동거            | 1남동거           | 이혼             | 이혼         | 1년              |
| 사례3 | 45  | 서비스업  | 고졸  | 1녀       | 독립              | 동거             | 이혼             | 이혼         | 10개월            |
| 사례4 | 48  | 상담원   | 대졸  | 1녀       | 동거              | 동거             | 이혼             | 이혼         | 1년              |
| 사례5 | 47  | 간병인   | 고졸  | 2남       | 1남동거            | 동거             | 이혼             | 이혼         | 4년              |
| 사례6 | 56  | 무     | 고졸  | 1녀       | 동거              | 동거             | 이혼             | 이혼         | 9년              |
| 사례7 | 57  | 가정도우미 | 대졸  | 1남       | 동거              | 독립             | 사별             | 이혼         | 3년              |

&lt;표 2&gt; 면접대상자의 재혼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징

| 사 례 | 재 혼 남 편 |            |     |            |       | 혼 인<br>유 형 | 지속기간  | 친자녀 | 경제<br>수준 |
|-----|---------|------------|-----|------------|-------|------------|-------|-----|----------|
|     | 나 이     | 직 업        | 학 력 | 전혼해체<br>사유 | 전혼자녀  |            |       |     |          |
| 사례1 | 47      | 노동         | 중졸  | 사별         | 1남 1녀 | 재혼         | 8년    | 무   | 중        |
| 사례2 | 54      | 사업         | 중졸  | 이혼         | 2녀    | 재혼         | 8년9개월 | 무   | 중        |
| 사례3 | 48      | 농장         | 대졸  | 이혼         | 1남1녀  | 재혼         | 5년    | 1녀* | 중        |
| 사례4 | 50      | 가공업        | 중졸  | 이혼         | 1녀    | 재혼         | 12년   | 1녀* | 중        |
| 사례5 | 55      | 역술인        | 무학  | 이혼         | 1녀    | 재혼         | 14년   | 1남* | 하        |
| 사례6 | 61      | 부동산<br>중개업 | 고졸  | 이혼         | 1남2녀  | 재혼         | 10년   | 1남* | 상        |
| 사례7 | 56      | 설계사        | 대졸  | 이혼         | 1남1녀  | 재혼         | 4년    | 무   | 중        |

\* 면접대상자와 동거

심층면접은 사례별로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피면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면담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피면접자가 서명한 후 한 부씩 보관하였다. 이 약정서에는 연구취지와 면담내용의 학문적 활용, 피면접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면접거부권, 면접의 녹음기 사용허가, 면접 후 녹취록 검토기회부여 등이 기재되었다.

#### 4) 자료분석

피면접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된 자료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녹취되었고, 연구원 본인과 연구보조원이 함께 녹음을 들으며 녹취록을 점검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근거이론법에서 제시한 개방적 부호화(open coding)<sup>3)</sup>를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개방적 부호화란 연구현상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으로써, 현상을 단계별로 범주화하여 명명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비수량적 자료분석의 범주화와 조직화를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질적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Nvivo2를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면접자의 각 사고 단위에 기초하여 자료를 범주화하고, 사고 단위간 관련성을 보는 작업을 반복하여 녹취록 전체를 조직하고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질적자료 분석은 자료분석의 정교성, 분석과정의 신축성 및 수정가능성, 자료의 통합성, 자료에 대한 통찰성 및 감사가능성의 향상, 자료전파 및 분석과정의 공유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질적 연구에서 부족할 수 있는 연구의 신뢰도를 담보해주었다고 하겠다(이명선, 2000: 96-98). 또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수작업으로 녹취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질적 자료를 line-by-line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현상의 의미단위를 명명하고 범주화시키는 과정.



## 4. 사례분석

다음의 <표 3>은 면접자료에서 발견되는 의미단위들과 그것을 범주화시켜 상위개념들을 도출한 분석결과이다. 재혼해체는 그 원인과 정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재혼생활 전체와 관련되었다는 전제에서, 연구사례의 진행과정을 일정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연대기적 구조방법에 따라 재혼의 시작부터 해체에 이르는 과정을 쫓아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혼해체와 관련된 개념으로 준비안된 결혼, 재혼동기의 정서적 애착결여, 취약한 부부유대, 부부갈등, 계자녀와의 갈등, 시집의 불신과 소외, 심리적 이혼, 이혼의 결정적 계기 등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것을 다시 상위개념으로 구성한 결과 1) 불안한 시작, 2) 재혼생활의 갈등, 3) 재혼해체 등으로 요약되었다.

<표 3> 재혼해체와 관련된 재혼현상에 대한 분석결과

| 상위 범주     | 범 주             | 의 미 단 위  |
|-----------|-----------------|--|
| 불안한 시작    | 준비안된 결혼         | 생각안하고 결혼. 재혼생활에 대한 대화 없었음. 계자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었음. 금방 결혼.           |
|           | 재혼동기의 정서적 애착 결여 | 혼전임신. 경제적 필요. 성적욕구. 심리적 외로움. 혼자 있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아서.          |
|           | 취약한 부부유대        | 남자 만난다고 의심. 살림을 맡기지 않음. 장래에 대해 얘기한 적 없음. 남편에게 막대함.             |
| 재혼 생활의 갈등 | 부부갈등            | 애들 얘기하면 싸움. 전남편 자녀에 대해 냉담. 남자랑 얘기했다고 발길질. 내가 고생해도 내 재산되는 것 아님. |
|           | 계자녀와의 갈등        | 친엄마 불쌍하다고. 아빠에게 여우짓. 나를 아줌마라고 칭. 애들이 무조건 싫음.                   |
|           | 시집의 불신과 소외      | 계자녀 편들기. 동서들이 나를 빼놓고. 시집에서 곁도는 느낌. 한번 남편버린 년 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음.   |
| 재혼 해체     | 심리적 이혼          | 재혼직후부터 정떨어짐. 쪽 이혼생각. 이대로는 살 수 없음.                              |
|           | 이혼의 결정적 계기      | 시동생이 폭력. 계자녀와의 관계 악화. 취직. 자녀문제해결.                              |

### 1) 불안한 시작

#### (1) 준비 안된 결혼

재혼 이혼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재혼이 그 결혼의 특성상 초혼보다 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재혼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Meyerstein, 1997). 이렇게 재혼에 대한 준비나 사전지식이 부족한 것은 재혼자들이 재혼에 대해 막연히 낙관적이거나 초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Ganong and Coleman, 1989), 이러한 태도 또한 재혼의 취약성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저 그런 거(재혼생활이 어떨 것이라든가) 생각안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전후사정과 자식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있구나... 그 정도였어요. 개네(계자녀)를 칭)들이 문제로 대두될지 몰랐죠. (사례 2)

첫 남편과 굉장히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주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 보니 전 남편과 여러 면에서 워낙 대비되는 성격이라... 금방 결혼했어요. (사례 3)

(남편되실 분과는‘아이문제’라든가, 결혼생활에 관해서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도 오래 혼자 있었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재혼을 하고 싶다고...저도 그랬고...그게 앞섰던 것 같아요. (사례 4)

결혼할 때는 모든 걸(계자녀 관련) 받아드릴 것 같았는데...실제 상황에서는 돌출부분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례 6)

## (2) 재혼동기의 정서적 애착결여

재혼에 현실적 동기가 더 작용한다는 Ganong과 Coleman(198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재혼 동기는 주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서적 애착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위 시선 등 소극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부부만족도가 결혼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혼의 이러한 특징이 재혼의 취약성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너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그 정도면 너 고생 안 시키고 사람 착실하다’그래서 그냥 만났어요. (사례 2)

이혼하고 혼자 산 횡수로 2년 좀 넘으면서, 참 많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어떨 때는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으면 했는데...저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약했고... (사례 3)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다기보다 아기를 갖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례 4)

4) 본 연구는 재혼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므로, 재혼모의 시각에서 남편 전처의 자녀를 계자녀, 재혼 남편과의 자녀를 친자녀, 전 남편과의 자녀는 전 남편 자녀로 칭하였다.

내가 움직여야 내 입에 밥 한 톨 들어가는 그런 세월...그야말로 거친 벌판에 혼자 서서 바람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그 사람이 밥 먹었느냐 챙기는 것이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한 수가 없었어요. (사례 6)

우리가 결혼 전에 함께 잠을 잤어요. 그 사람은 한창 성욕이 왕성한 시기이고, 서로가 처음도 아니고.. (재혼의)많은 경우 성욕에 끌려서, 우리 결혼도 그런 것 같은데, 결혼하는 것 이것 잘못이에요. (사례 7)

### (3) 취약한 부부유대

#### ① '운명공동체'의식의 부족

면접에서 드러난 재혼부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부부유대가 매우 약한 것이었다. 즉 '운명공동체'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서로에 대한 헌신이 초혼에 비해(연구대상자 스스로 밝히기를)약하였으며,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소홀하였다. 또 초혼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의심이다.

처음 남편한테는 세수하면 수건 들고 있고, 아침에 옷도 다 챙겨주고...재혼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한번 버린 인생인데 내가 뭐 이제 전처럼, 처음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살 마음가짐은 털 가지게 되더라고요. 첫 남편에게는 반말도 못했는데, 여섯 살이나 차이가 나는 데도 재혼에서는 '아, 임마'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사례 2)

그 사람도 이 결혼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지 살면서 '우리 뭐 하자'라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집도 한번도 수리하지 않고,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벽지 한번 새로 바르지 않았어요.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하겠단지 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도 들곤 했으니까요. (사례 4)

싸울 때마다 '너가 언제 밥 한 끼 따뜻하게 해 주었냐'고 했는데, 그러면 그랬어요 '밥 얻어 먹으려면 늦어도 9, 10시경에는 들어오라'. 그러면 '너가 언제 늦게 오는 날 기다려주었냐'라고 하는데,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사례 6)

#### ② '경제공동체'의식의 부족

초혼과는 달리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한다는 '운명공동체'의식이 재혼부부에게는 희박한 데, 재혼한 아내에게 가장 경제권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가계운영방식은 이러한 부부유대의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웃긴 거는,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가 계산하는데 우리만 남편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다른 가정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거를 안 말기더라고요. 가정 살림어요. (사례 3)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고지서나 세금, 전기세 뭐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내고, 내 딸아이(전남편 아이)나 나에게 들어가는 돈은 내가 내고...나와 그 사람이 돈을 합쳐서 살지는 않았고...이런 점이 나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시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제 돈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 돈 챙겨서 도망갈지 모르는 년이라고... (사례 4)

재혼한 여성입장에서도 가정 경제에 대해 초혼모와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재혼한 여성 또한 남편 재산과 ‘내 돈’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돼 남편이 집을 짓게 되었는데, 돈을 보태달라는 것을 은근히 비치길래 ‘내가 왜 여기에 내 돈을 투자해야 되냐고...저희가 함께 살긴 살지만 그거는 싫다는 쪽으로 했죠. 나한테 피 같은 돈이고... (사례 2)

(시어머니의 심한 구박에 대해 말하면서) 어머니는 여자가 한 십년 장사하면서 혼자 살아왔으니 돈이 좀 있을거라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에 돈도 좀 내 놓고...남편 사업에 돈도 좀 대길 기대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래야 하나요? 나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례 4)

재산형성에 아무리 기여하여도 결국은 ‘남에게 좋은 일 해주는 것’, 다시 말해 남편과 함께 경제적 부를 이룩했어도 그 ‘과실’은 결국 전처 자녀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거들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런게(재산) 전부 내 것은 안 되잖아요...결국은 전처 애들 것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게 내가 헛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여자는 살면서 돈 계산부터 하는 여자라는 거죠. (사례 3)

### ③ 상대방 정절에 대한 의심

재혼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재혼부부는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결혼식 혹은 혼인신고를 하는)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는 초혼과 달리 한번 성에 대해 경험이 있고 이를 상호간에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결혼생활에서 끊임없이 배우자의 정절을 의심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도 아저씨(남편)를 의심하고...아저씨도 나를 의심을 많이 하고 그랬죠. 남자환자(자원봉사하는 병원의)에게서 전화오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자원봉사하는 병원의)이 내게 전화를 하면 남자가 생겼다고 자꾸 트집을 잡고...사람을 시켜서 뒤를 밝게 하기도 하고...그로인해 싸움이 잦아지고...그

래서 재혼이라는 게 힘든 거구나 했죠. (사례 1)

부업이라도 할라치면 의심을 했어요. 밖에 나가 딴 생각이나 하나 싶어가지고..싸움이 나면 하는 말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사례 5)

내가 사업이라고 일을 하니까 자연히 남자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남자들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바람피우고 다닌다고 생떼를 써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사례 6)

결혼한 후에도 남편 사무실에 나가 일을 했어요. 현장 노무자들이 말썽피지 않고 일 잘하게 하려면 잘 구슬려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다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꼴을 못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말 섞은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 야단치더니 나중에는 나에게 트집 잡아 하는 말이 '내게 쉽게 몸 준 년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란 법 있느냐고. 우리가 결혼 전에 함께 잠을 잤어요. 서로가 모두 초혼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한창 성욕이 왕성한 시기이고...그런데 이것이 발미가 되었던 거예요. (사례 7)

## 2) 재혼생활의 갈등

재혼한 후 결혼생활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 계자녀와의 갈등, 시집과의 갈등으로 범주화되었다.

### (1) 부부갈등

#### ① 의처증과 가정폭력

면담 대상 재혼가정에서 재혼모들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혼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원인이 재혼모의 정절에 대한 의심이었으며, 이러한 의심은 이들이 혼전에 비교적 쉽게 성관계를 갖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중 몇 사례는 폭력을 수반한 심한 가정불화로 이어져 재혼생활이 폭언, 폭력으로 점철되다가 종래에는 이혼으로 종결되기도 하였다.

그때 수도가 얼어서 고치는데, 막일꾼들은 잘해줘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인격무시한다고 그럴까봐. 커피를 한 잔 끓여줬는데, 남편이 '이 년이 어디다 꼬리를 쳐'하면서, 일꾼들 앞에서 나를 구둑발로 걷어차고...어떻게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경찰관이 남편을 차에다 싣고 가고, 나는 폭력 한 걸로 고소장을 냈어요.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사례 6)

어느 날 또다시 의처증이 발동하고, 큰 소리가 나고, 집안 살림이 다 부서져나가고,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집안에 내 피가 낭자하게 되고, 그때 코뼈가 부러졌는데, 그 후로 후각이 마비되어 지금도 냄새를 전혀 맡지를 못해요. 머리에도 심한 부상이 있어서, 그 후로 시각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왼쪽 눈 쪽으로는 없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항상 보여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그 이전에 맞았을 때 병원진료기록도 챙기고 해서 경찰이 강제로 이

혼을 시켰어요. (사례 7)

남편이 신체적 장애자로서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대신 아내로부터의 폭력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전 남편 아이를) 아주 싫어하고 불만이어서 그 일로 자주 싸웠는데,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해요. 욕도 잘하고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요. 물건도 내 던지고...내가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했어요. 그럴 때는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 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놀러왔던 것이 폭발하는 거지요. (사례 5)

## ② 계자녀를 둘러싼 갈등

재혼부부들은 계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부갈등을 표출하고 있었다.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매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계자녀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혼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재혼모는 아이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그냥 싫었다는 것이다. 계자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 결혼이 아님에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통해 재혼부부들이 재혼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로 현실적인 인식을 하지 못했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싫더라고요. 싫어요...밉더라고요. 하는 행동 같은 게 거슬리고. 제가 냉정하게 대했어요...말도 안하고. 그저 남편만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깐 우리 남편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아이들에게 심해지니깐 자기 지식들인데, 한마디로 정이 떨어진 거죠. 하루는 애들 문제로 몇 번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대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재네들 다 죽이고 살까?' 이런 말을 딱 한번 하더라고요. 이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내 꿈은 그거, 셋(부부와 친자녀)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사례 3)

재혼생활에서 남편이 계자녀들을, 흔히 말하는 '싸고도는'상황이 부부싸움을 불러오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사후에 나오는 종신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수령자를 딱 지정을 했더라구요. 자기 아들로...근데 보통 일반적인 가정, 정상적인 가정일 경우에는 그냥 상속자를 비워두는 게 그게 원칙인데 계약 당시에 자기 아들이 수령하게 딱 했더라구요. 전 그거 봤을 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졌어요...그럼 나는 뭐고 애기 우리 애기는 뭐냐구...그러면서 싸우게 되고, 그 후에도 이 일로 자주 싸웠어요. (사례 3)

어느 날 그 사람 옷에서 그 사람 딸아이의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핸드폰을 사줘서 고맙다는 말이 있었는데...내게는 일원 한 푼 주지 않으면서...그 아이에게는 옷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너무 화가 났어요...그래서 또 대판 싸움이 나고...폭력과 힘한 욕과... (사례 4)

(전처 아이들이 손버릇이 나빠서) 수시로 집안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남편이 나를 의심하고 욕박지르길래, 하루는 아이들이 흠쳐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나를 발길로 때리면서 이제는 남의 아이들을 도둑으로 모냐고 하면서...‘그래, 니 아들은 훌륭한데 내 아이들은 도둑이란 말 이냐고 하면서 내 아들(전 남편 자녀)까지 들먹여가면서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사례 7)

### ③ 전남편 자녀에 대한 거부

재혼부부에게는 계자녀 뿐만 아니라 전남편 자녀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으며, 싸움이 결국 이혼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사람은 아이를 친정에 두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난 듣지 않았어요. 당연히 데리고 갔죠. 그런데 결혼생활 내내 내 딸이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요. 전혀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처럼...그래서 내가 속이 많이 상하고 그 일로 종종 다쳤어요. (사례 4)

전 남편하고 헤어질 때, 큰 애는 아빠가 키우기로 하고 작은 애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 남편이 찾아와서 ‘그런 상황이면 작은 애를 데려 가겠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자 그럼 ‘아이랑 다 함께 만나서 얘기 하자’고 했어요. 그 때 저는 만삭이어서 재혼한 남편이 ‘자기가 갔다 오겠다. 대신에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하고 갔는데, 아이를 주고 왔더라고요. 아이를 주고 와서는 시어머니하고 하는 소리가 ‘차라리 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 믿음이 무너지고 정이 떨어졌어요. 문제는 자식 때문이었던 거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자식한테 섭섭하게 할 때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사례 5)

## (2) 계자녀와의 갈등

재혼할 당시 재혼모들이 계자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그냥 있구나’ 정도로서 그들의 존재가 재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잘해 보려는 의지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막상 재혼하여 생활을 함께 하면서 결혼 초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애들은 어떻게 할래?’ 하시며 (제가) 힘들까봐 어머니가 데리고 산다는 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나도 내 자식을 (남편에게)두고 나왔기 때문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뇨, 제가 꾸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딸 둘어요. 그런데 의붓엄마가 그냥 의붓엄마가 아니에요...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약을 바짝 바짝 올리고, 거짓말하고, 간쑤대고, 주변에다가 떠들어대고...내 노력이 아무짝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례 2)

자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있구나... 그 정도였지요. (사례 3)

<사례2>의 재혼모는 아이들 친엄마에게 아이들과 친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때까지 아이들 접촉을 피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아이들과의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한다.

계모에 대한 계자녀들의 거부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애들은 나를 ‘저기요’라고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그 아줌마, 아니면 그 여자라고 부르고, 수시로 할머니에게 ‘그 여자가...’라고 하면서 이르고...이혼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큰 기집애가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를 넣은 것예요, ‘애(전남편 자녀) 잘 키워갖고 잘 가냐?’(사례 2)

돈을 줬는데, 내가 분명히 줬는데, 안 줬다고 막 덮어씌우는 거예요. (사례 4)

애들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들을 알고 지냈어요. 내가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도 시키고...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한 식구가 되니까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개네들은 나를 내내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사례 7)

계자녀들과 재혼모의 갈등의 근원은 양자 모두에게서 찾아진다. 새엄마에 대한 불쌍함과 그리움, 아빠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 계자녀들에 대한 재혼모의 거부 등 갈등의 원인이 다양하였다.

#### ① 친모에 대한 충성심

새엄마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아빠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자녀들은 친엄마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고, 특히 자녀들은 친부모가 언제고 다시 결합하여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Papernow, 1984), 새엄마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러한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모에 대해 거부적이 된다. 본 연구의 면담사례에서도 계자녀들은 친엄마에 대한 ‘충성심<sup>5)</sup>’ 때문에 새엄마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진짜 꽤 죽여 버리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엄마가 살아있으면 아버지하고 재미있게 살텐데 하는 생각에 내 꼬락서니가 보기 싫은 거예요...그 미운 생각이 여기까지 박히는 거지요. (사례 2)

친엄마가 대전 어디에 살고 있다는데, 엄마가 아프대요. 그 엄마는 애들에게 일종의 동정심도 사고, 아이들 생각에 엄마는 아프다는데 아빠는 새엄마 얻어가지고 그러니깐 개네들 눈에 내가 미운 거예요. (사례 7)

5) <사례 2>의 경우, 결혼 한 그 다음 해에 전남편 아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6) 계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이 친부모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심리적 갈등을 Lewis(1980)가 충성심 신화(loyalty myth)라고 명명하였다.



② **아빠를 둘러싼 삼각관계**

재혼의 가족관계 중 초혼과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먼저 성립되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혼모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 새로이 부부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계자녀들은 아빠를 새엄마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아빠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애들 아빠가 저한테는 잘했어요. 그거를 큰 애가 못 보는 거예요...그러면서 제가 아빠 사랑받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너무 너무 여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거슬릴 정도로...큰 애가 그렇게 여우 짓을 하더라고요. (사례 2)

딸아이가 우리 부부가 어디가면 꼭 따라 붙는 거예요...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시장을 가도 그냥 우리 끼리 가고 싶은데 꼭 따라 붙는 거예요...그런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빠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거를 또 그렇게 질투를 해요. (사례 3)

③ **계자녀에 대한 거부감**

계자녀-계모간의 갈등이 언제나 계자녀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재혼모들은 계자녀들에 대해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부감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애들도 이 남자가 속을 썩이지 않을 때는 다 예쁘게 봐지더니 그 남자가 속을 썩이니까 애들도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사례 1)

남편의 불만은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냉정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했으니까...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싫었어요. 싸우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냉정하고 냉담하고...그 정도... (사례3)

내가 개네들을 부담스러워했죠. 가족이 별안간에 늘어나니까, 머리로는 모든 걸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살아보니까 머리하고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을 근처에 방을 얻어 내보냈어요, 남편과 대판 싸운 다음날. (사례 6)

<사례 3>의 경우는 본 연구의 면담대상자들 중 유일하게 남편을 좋아하면서도 이혼한 사례인데, 이혼 사유가 계자녀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계자녀들과 곁으로 들어날 정도로 커다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못견디게’아이들이 싫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왜 애가 싫은가? 근데 그거는 질투인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 제 남편과 전처가 사랑했다가 낳은 자식,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개가 또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전처를 연상을 하면서 막 애가 미워지더라고요. 저도 전 남편하고 결혼생활을 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제 과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남편의 그것만 보여 가지고. (사례 3)

### (3) 시집의 불신과 소외

재혼모와 시집과의 갈등은 계모역할에 대한 불신, 재혼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한 가족성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형태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불신과 소외는 단지 시어른들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동서, 시동생 등 다른 시집 가족들도 재혼으로 들어온 ‘새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적이었다.

#### ① 계모역할에 대한 불신: 계자녀 편들기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에 대해서는 시집을 포함한 친족들의 간여와 간섭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작은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출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학대하여 아이를 쫓아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한대요. 가출한 애가 할머니에게 연락하면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놓고 내게 와서는 아이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고...00(전남편 자녀)이를 데려왔을 때, 남자 아이니까 방 하나를 주고, 두 딸아이에게 한 방을 주었더니 시어머니가 00이는 방 얻어 내보내고, 여자 아이들에게 각 방 주라고 난리를 치고. (사례 2)

시댁에 가면 큰 엄마들이나 고모들이 저에 대해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주로 아이들에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나쁘죠. (사례 3)

#### ② 소외감

재혼모들은 시집에서 본인이 곁돌고 있다는 느낌을 토로하였다. 시집 가족들이 재혼에서 들어온 재혼모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가족 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서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더 속상한건 동서들이예요...시어머니도 집안 대소사를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동서들하고 해요. 그럼 둘째 동서가 명령조로 전화를 해요. ‘형님, 이번 제사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요...나중에는 동서 둘이 짜고 나는 완전 곁도는 거예요...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나중에 신랑한테 ‘내가 무슨 이 집의 맏며느리냐’라고 따졌죠. (사례 2)

특별하게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도 제 자격지심에...당당하지 못했죠. 저는 결혼 한 번 했었고, 형님(동서)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주눅이 들고 당당하지 못하고...그런 기분이 아주 싫더라고요. (사례 3)

그 사람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제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 돈 챙겨서 도망갈지 모르는 년이라고...한번 남자 버린 년 그 버릇 어디 가겠냐고... (사례 4)

재혼한 며느리에 대한 시집의 소외는 재산문제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눈을 판 후에) ‘너는 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거 셋째네 줬으니까.’ 난 너무 병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걸 셋째 앞으로 돌리느냐...그거 일억 얼마인데, 팔면 우리 얼마씩 분배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우리가 만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니가 여기 와서 한 게 뭐있냐? 니가 자식을 나줬냐? 뭘 했냐? 니가 결국 우리 집안다 망쳐먹은 거 아니냐였어요. (사례 2)

### 3) 재혼 해체

#### (1) 심리적 이혼

면담 대상자들은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된 시기부터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거나 (사례 5), 정식 이혼하기 오래 전부터 ‘즉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사례4)는 등 심리적으로는 이혼상태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혼을 주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혼자서 살 자신이 없거나(사례 4, 7), 자식에 대한 책임감(사례 1, 5, 7), 남편에 대한 두려움(사례 6, 7)이나 사랑(사례 3) 등으로 다양했으며, 두 번 이혼에 대한 거부감은 면담 대상자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이혼 주저 요인이었다.

나는 어디서라도 ‘너 또 못살고 헤어졌냐’라는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참고 했는데... (사례 1)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도 ‘너 또 호적파면 안된다. 그 집 귀신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사례 2)

두 번이나 이혼녀 딱지를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례 4)

오랜 시간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혼을 실행하는 데에는 결정적 계기가 작용하고 있었다.

#### (2) 이혼의 결정적 계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외박이 빈번해지고 가정생활에 소홀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례 1>을 제외한 나머지 면담대상자들 이혼의 결정적 계기는 모두 재혼생활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폭력으로까지 확대된 시집의 박대, 계자녀 관계의 악화, 전 남편사이의 자녀문제 등 재혼의 본질적 조건이 이혼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 ① 시집의 확대

재혼의 경우, 시집 가족들의 간여와 관심 등이 초혼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체계이론학자들은 ‘경계’의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해 왔다. 남자가 혼자가 된 후 재혼까지의 일정 기간동안 아동양육이나 가정살림꾸리기에 시집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시집의 이러한 역할이 재혼모가 들어온 뒤에도 끝나지 않고 이 가정에 대한 간여가 지속되는 경향이다. 때로 이러한 간여와 관심이 지나쳐서 재혼모에게는 간섭이나 감시로 느껴지는 수준까지도 된다. 이러한 시집의 지나친 개

입은 재혼생활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 학대로까지 이르며 이로 인해 재혼이 해체되기도 하였다. <사례 2>는 결혼 초부터 시집 가족들과의 불화가 재혼생활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시집의 학대가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이혼하게 되었다.

그 전날도 시어머니, 시동생과 막 싸웠어요. 그러더니 둘째 시동생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더라고요. 화분도 막 던지고...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니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악을 썼어요. “내가 아직 사지 멀쩡할 때 이 소굴에서 빠져나간다. 내가 이 대접받고 내 명에 못 죽는다. 너, 나랑 이혼 안 해주는 이유가 뭔데? 니네 엄마 때문에, 니네 식구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막 악을 썼어요. (사례 2)

### ② 계자녀와의 관계 악화

계자녀와의 갈등이 재혼 해체의 계기가 될 정도로 계자녀-계모 관계는 불안정한 재혼생활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자녀와의 갈등은 양자 모두에 기인되는데, 계자녀와 재혼모가 서로 관계를 맺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파생되기도 하지만, 계자녀 존재 그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혼한 사례도 있었다. 재혼의 기본적 특성인 계자녀의 존재로 인해 재혼이 해체되는 사례를 통해 재혼의 본질적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이 별거를 제안하면서)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은...그 사람 애들하고 나하고 악화되니까 그런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애들하고 여기서 살고 나는 그냥 서울 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2년 뒤에 이혼했는데, 그 동안 몇번이나 다시 화해하고 얘기(친자녀 칭)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전처 애들하고 함께 살 생각을 하니깐 끔찍한 거예요. 개네들만 없으면 내가 백번 화해하고, 매달리면서 살자고 하고 싶은데...이 남자하고 우리 얘기하고 셋이 살면 정말 좋을텐데... (사례 3)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 아이들이 내 아이(전 남편 자녀)에게 밥도 안주고, 자기들끼리만 사 먹고...그 얘기 듣고 내가 길길이 뛰면서 아이들 욕을 했더니 남자가 수술해서 누워있는 나를 복도로 질질 끌고 가 마구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욕했다고. 구둣발로 마구...그 다음에 이혼하자고 그랬죠. (사례 6)

### ③ 전남편 자녀

대부분의 사례에서 전남편 자녀들은 거의 함께 살지 않거나, 결혼 초에는 함께 살다가도 일찍 독립을 해서 재혼생활의 안녕 여부에는 그다지 관계되지 않는 반면에, 이혼에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딸아이(전 남편 자녀) 때문이에요. 그 애가 내가 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매 맞고 하는 것을 보고 컸는데, 그래서 그 애가 울기도 많이 울고, 함께 이 집에서 나가자고 애원도 수차례하고 했는데...그러다가 그 아이는 대학을 핑계로 집을 나갔는데, 나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왜 이렇게 사냐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 나 사는 모습

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비참했지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사례 4)

저의 큰 애(전 남편 자녀)가 고모 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중에 찾았는데, 고모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아직 어리고 돌봐줘야 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집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주었는데, 남편이 그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것이 계속 불만이고, 점점 싸움이 커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헤어지게 되었어요. (사례 5)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이 점점 심해지고...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때는 내 아들(전 남편 자녀)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 아들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아들 걱정이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례7)

## 5. 맺는 글

재혼 후 이혼한 여성의 시각에서 재혼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한 결과 재혼생활 전반에 걸쳐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혼은 그 시작부터 불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계자녀의 존재, 전혼 경험 등 재혼의 본질적 조건들이 재혼생활의 위험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서구의 재혼관련 연구에서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점, 즉 재혼당사자들이 재혼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나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재혼에 임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계부모 역할'이며 계자녀가 있는 재혼과 그렇지 않은 재혼은 너무나도 다름(White and Booth, 1985)에도 불구하고, 면담에 임한 재혼여성들은 재혼을 결정할 때 계자녀 존재에 대해서 대수로이 여기지 않고, 이들과 함께 할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측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계모 역할에 대한 계자녀의 거부, 아빠 사랑에 대한 계자녀의 질투 등 결혼생활에서 계자녀와 관련한 갈등상황에 직면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한 계자녀 존재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자녀-계모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다.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남편과 정서적 애착보다는 현실적 동기에 의해 재혼을 결정하였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부부간의 만족도가 재혼생활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을 고려하면 재혼동기 또한 재혼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재혼한 이후에도 부부간의 정서적 관계는 발전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심리적 헌신이 초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한 가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부부유대'도 매우 취약하였다. 남편은 재혼한 아내에게 가정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재혼여성 또한 재혼 전 자신의 재산을 남편과 통합하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할 미래'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정절 의심 등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결혼생활 전반에 작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재혼은 초혼과 달리 '부부공동운명체'의식이 약하였으며 결국 이것이 재혼의 불안정으로 귀착되고 있었다.

계자녀와 전혼 경험 같은 재혼의 본질적 조건은 재혼생활 내내 갈등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

혼 경험은 바로 상대방의 정절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은 의처증, 폭력 등으로 발전하여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 계자녀의 존재는 재혼생활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재혼모는 계자녀 존재 자체가 ‘견딜 수 없이 싫고’ 계자녀입장에서는 ‘엄마자리를 차지한 존재’로 계모를 인식하였다. 재혼모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형성된 계자녀-아빠의 유대는 부부유대 형성에 끊임없이 방해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계자녀-아빠-재혼모로 형성된 애정의 삼각관계는 결혼생활의 주요 갈등요인이었다.

재혼가족과 시집간의 관계는, 재혼가족의 경계는 혼돈되고 시집가족의 경계는 경직되어 재혼모에게 이중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시집 가족들은 재혼가족의 경계를 쉽게 넘어 들어와 재혼여성의 계모, 며느리, 형수로서의 역할에 깊이 개입하여 간섭하였다. 반면에, 시집의 경계는 견고하게 닫혀서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들은 재혼모를 가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적이어서 재혼모는 시집의 가족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체된 재혼에서 도출된 위와 같은 여러 특성들은 재혼모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 직, 간접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혼모들은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시 이혼녀 딱지’를 붙이고 싶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이혼을 주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은 시집의 폭력적 학대, 계자녀관계의 악화, 전 남편 자녀 존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실천, 특히 가족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시사해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결과는 재혼과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였다. 한 해에 생겨나는 가족의 1/4이상이 재혼가족인 실정에다가, 재혼은 그 본질적 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것은 재혼과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을 미루면 미룰수록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문제가 방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혼과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공공이건 민간이건 관계없이 우리나라 가족복지서비스가 사후 개입적, 대증적이라는 비판이 팽배한데, 재혼과 관련된 사회복지개입은 가족해체, 청소년일탈, 가족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재혼가족에 대한 사전 준비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재차 강조하지만 재혼은 초혼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는, 판이하게 다른 결혼이다. 재혼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족역할의 재조정, 새로운 가족관계형성, 계자녀·전 남편자녀·친자녀의 심리, 재혼가족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에 대한 부담, 시집과의 관계 등 초혼과 전혀 다른 재혼생활에 대한 사전인식과 준비를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 서비스 대상의 확대를 거론하고자 한다. 재혼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재혼가족에 대한 시집 가족들의 간섭과 관여이다.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시집과의 혼돈된 가족경계는 재혼모에게 역할혼란을 야기하여 재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경계의 기능적 회복, 그에 따른 시집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재정립을 위해서 서비스의 대상을 재혼가족 외에 시집 등 확대가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혼 후 이혼한 여성의 시각에서 해체된 재혼을 이해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해체된 재혼의 특성들은 다분히 재혼여성의 시각에 한정된 것이며, 이는 바로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재혼해체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는 재혼해체에 관한 남성의 시각이 통합될 때 가능하며, 이에 관한 연구를 추후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연옥. 1999. “재혼 가정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41-62.
- \_\_\_\_\_. 2002. “재혼가족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19-342.
- \_\_\_\_\_. 2004. “재혼가정의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215-235.
- 김효순. 2006. “재혼가족의 양육태도 유형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57-87.
- 손원제. 2002. “새엄마·새아빠를 당당하게”. 『한겨레21』 409: 40-42.
- 이명선. 2000. “컴퓨터를 이용한 질적자료분석”. 『질적연구』 1(1): 95-107.
- 임춘희·정옥분. 1997. “초혼계모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73-102.
- 장혜경·민가영. 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전춘애·유계숙·천혜정. 1998.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5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pp. 3-66.
-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 2000.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19.
- 통계청. 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6. 『여성통계』 서울.
- 현은민. 2002.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7(3): 153-172.
- Aquirre, B. E. and W. C. Parr. 1982. “Husbands Marriage Order and the Stability of First and Second Marriages of White and Black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605-620.
- Bernstein, A. C. 2000. “Remarriage: Redesigning couplehood.” pp. 284-311. In *Couples on the Fault Line: New Directions for Therapist*. edited by Papp, P.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larke, S. C. and B. F. Wilson. 1994. “The Relative Stability of Remarriages –a Cohort Approach using Vital Statistics.” *Family relations* 43: 305-310.
- Espenshade, T. J. 1983. “Black-white Differences in Marriage, Divorce, Separation, and Re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Pittsburgh, PA.
- Felker, J. A., D. K. Fromme, G. L. Arnaut and B. M. Stoll. 2002. “A Qualitative Analysis of Stepfamilies: The Stepparen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8(1/2): 125-142.
- Fishman, B. 1983. “The Economic Behavior of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2. 359-366.
- Fredericson, I. and J. J. Handlon. 1994. “Working with the Remarried Couple System.” In *On intimate ground: A gestalt approach to working with couples*. edited by G. Wheeler and S. Backman.

San Francisco: Jossey-Bass.

- Furstenberg, JR. F. F. and G. B. Spanier. 1984. "The Risk of Dissolution in Remarriage: An Examination of Cherlin's Hypothesis of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Family relations* 33: 433-441.
- Ganong, L. H. and M. Coleman. 1989. "Preparing for Remarriage: Anticipating the Issues, Seeking Solutions." *Family Relations* 38(1): 28-33.
- Jacobson, D. S. 1979. "Stepfamilies: Myths and Realities." *Social Work* 24: 202-207.
- Lewis, H. C. 1980. *All about Families: The Second Time Around*. Atlanta, GA: Peachtree.
- Martin, T. C. and L. L. Bumpass. 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Meyerstein, I. 1997. "The Problem Box Ritual: Helping Families Prepare for Re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8(1): 61-65.
- Monahan, T. P. 1952. "How Stable are Re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8: 280-288.
- \_\_\_\_\_. 1958. "The Changing Nature and Instability of Remarriages." *Eugenics Quarterly* 5: 73-85.
- Nielsen, L. 1999. "Stepmother: Why so Much Stress?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0(1/2) 115-148.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London: SAGE Publications.
- Papernow, P. L. 1984. "The Stepfamily Cycle: An Experiential Model of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3): 355-363.
- Quick, D. S., P. C. McKenry and B. M. Newman. 1994. "Step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Adjustment to New Family Roles." pp. 105-126. In *Stepparenting: Issues and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Pasley K. and M. Ihinger-Tallman.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Sager, C. J., E. Walker, H. S. Brown, H. M. Crohn and E. Rodstein. 1981. "Improving Functioning of the Remarried Family Syste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3-13.
- Strauss, A. and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Walsh, W. M. 1992.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709-715.
- White, L. K. and A. Booth. 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689-698.
- Yin, R. K. 2002.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A Qualitative Analysis of Dissolution of Remarriage

Kim, Yoon-Ok  
(University of Seoul)

Remarriages constitute an increasing proportion of all marriage in Korea. In 2005 26.1% of marriages were remarriages for one or both partners. Also, remarriages are more likely to end in divorce than first marriages.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 remarriage is ended in divorce in Korea. Seven ex-stepmothers were asked in-depth interview to describe the whole story from courtship to divorce of remarriage. Their narratives were analyzed by a qualitative software program, Nvivo2, which assured us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method of the study.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several major concepts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remarriage: lack of feeling of love in a motive of marriage, lack of understanding of and preparation for remarriage, fragile tie of remarried couple, frictions between step-children and step-mothers, feeling excluded from family-in-law, and wife batte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highlighted that the social work interventions should be actively done in the area of family life education including remarriages and remarried families.

Key words : remarriage, remarriage family, family life education

[논문접수일 2007. 1. 18. 게재확정일 2007. 3. 13.]